

‘개통 지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재원 마련 대책 필요

대부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3년 간 2676억원 더 마련해야 정부 “시비 부담 확보돼야 국비 편성”...시 재정압박 더 커질 듯

개통 지연이 예상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앞으로 시비 매칭(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놓은 광주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과 관련, 이번 추경에 3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8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이미 본 예산 편성시 59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도시철도 건설관련 지방채만 모두 82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 예결위는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 지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1단계의 총공사비 1조3046억원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5128억원으로, 광주시는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1단계 공사비와 관련, 이번 추경까지 시비 매칭은 2542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3년 간 추가적으로 2676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어서 광주시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결위는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시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을 꼽았다.

당초 총사업비를 7046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설계 결과 1조5341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2818억원에서 3320억원이 늘어난 6146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지장물 발견 등 변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철도 건설이 3~5년이나 지연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재원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채 채무액이 2020년도에 최초로 1조원을 넘긴 뒤 불과 2년 사이에 4229억원이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20% 이하 이기는 하지만, 향후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수요가 많아 큰 폭의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공정률은 38%로 당초 내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2단계는 5년 정도 지체돼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농가 경영 불안 외면하지 마세요 29일 오후 서울역 앞 한강대로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트램 예산 삭감 수용...공론화로 최종 결정”

강기정 시장 밝혀

광주시가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트램 설치 사업을 시민·시의회와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29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더라도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는 만큼 시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도 시민, 시의회에 충분히 이해가 닿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씨앗 예산’으로 표현한 트램 설치 용역비(1억원), 일 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진로와 적성을 찾는 청년 껌이어(2000만원)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지하철 1~2호선 사각지대인 농성역, 터미널, 야구장을 연결하는 공약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1단계 2.5km, 2단계 국가 협의 등으로 구체화했다”며 “(일부에서) 지하철과 트램을 혼동하고, 지하철 만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짓느냐는 지적도 있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취지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 용역비마저) 깎으면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니 모순된다”라며 일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어 “트램, 껌이어 예산 삭감은 제 입장에서는 원팔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지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공론화가 될 뻔했다고 한 만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더 충분한 공론, 공감, 논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치 고수’를 찾아라

세계김치연구소, 내달 1일~16일 김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와 세계김치연구소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29회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배추김치를 포함한 총 2종의 김치를 종목으로 10월 6일 예비 경연, 10월 20일 본 경연이 진행된다. 전통 김치 전문가 역량 평가를 위해 배추김치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재료는 최대 16가지로 제한한다.

대상 1명에게는 대통령상 시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김치 응용요리 경연대회’도 연다. 참가 대상은 학생부, 일반부, 외국인부 총 3개 분야다. 이 대회 역시 9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레시피 등 서류심사를 통과한 20팀 이내를 선정해 오는 10월 21일 경연이 진행된다.

‘김치 응용요리 경연대회’는 최우수상 1팀(광주시장상, 상금 150만 원), 우수상 3팀 등을 선발·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www.wikim.re.kr) 또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누리집(kimchi.gwangju.go.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광주세계김치축제 경연대회 담당자(062-676-3601)에게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 유치 적극 나서

팜투어 진행

전남도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30일까지 이틀간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주택 분양, 관광홍보 등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 분야별 관계자를 초청해 팜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팜투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발전 가능성 및 개발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호텔업 및 대형 주택사업자 관계자와 기업체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브리핑을 시작으로 ▲구성지구에 위치한 솔라시도CC 홍보관, 산이정원, 태양광발전소, 태양의 정원, 상공리 전망대 ▲삼호지구 내 영암

삼우스위스 사업지 투어 ▲삼포지구 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F1홍보관 방문 및 영암카트경기장 카트 체험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

구성지구는 태양광발전단지(98MW), 태양의 정원, 골프장 18홀을 완공해 운영중으로, 복합문화공간 산이정원과 선도 주택단지,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검토중이다. 삼호지구는 골프장 45홀 개장과 관광레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 국민생활형 골프 훈련시설인 제3골프장(18홀)을 조성하고 페어웨이 빌리지 건립 등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고려하고 있다. 삼포지구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밸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대축제!

남원에서 만나요

제59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The 59th Jeollabuk-do Sports Festival

2022. 9. 2.(금) ~ 9. 4.(일) / 3일간

남원시 춘향골종합운동장(주 경기장)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 9월 2일(금) 19시 춘향골체육공원

초청가수 공연

오마이걸

정동원

김다현

에일리

남승민

V.O.S

박혜신

이도진

머스트비

장혜리

양지원

에메랄드캐슬 김선형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회 순환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 | 전라북도체육회 | 주관 | 남원시· 남원시체육회